

「간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7회)

朴魯哲

(二)印度教 中心 思想 概觀

[2]輪回說(續)

上古印度의 輪廻思想으로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祖先에게 가서 다시 再會한다는 구든 信念을 가지고, 그 幸福의 天國에 이르기를 讚頌한바 死後에는 반드시 死王『야마』(即死神yama)의 使者(人間에서 彷徨하는 두 마리狗)가 死後의 旅人을 爲하여 接待한다는말이 있다. 이러듯 理具吠陀(뤼크·예다) 時代에는 死後에 반드시 祖先의 天國에 들어감을 긋게 미듬으로서, 生前에 供獻과 그 儀式에 힘쓰는 말함이오. 이가튼 生前의 服務는 目前의 幸福뿐더러 死後의 幸福을 爲하여 쏘는 祖先의 幸福을 爲하여 그 服務의 必要를 말한 것이다.

이리하여 牧畜時代에는 家長의 權威가 자못 盛大함을 짜라 당시 祖先崇拜의 風을 養成하였고, 또 吠陀時代에 이르러서도 당시 僧仙의 言에 依한 諸天神과 함께 祖先崇拜의 遺風을 傳授하여 왔다고 한다. 이리하여 당시 善惡에 對한 概念은 자못 原始的 思想으로서 단지 諸神에게 祭祠를 드리고 쏘는 僧侶에게 供物을 바치는 것만으로 善行의 本分을 삼아 이에 違反된 者를 不善者라 하였고 이에 服從한 者를 善者라 하였다. 이리하여 善人에 對하여는 天上의 生活을 營爲할수 잇스되 그 不善者는 天上의 幸福을 엇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 結果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道德 觀念及 報應의 思想은 한갓 物質的 範圍를 버서나지 못 하였으나, 당시 精神的 方面에 이르러 唯心的 信仰及 無形的 善惡觀念은 즉 萌芽되기 前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이에 比하여한 마디 들고자 한다.

(現今 基督教의 教勢가 全世界的으로 漸次擴大되는 原因은 무엇보다도 基督이 일즉 猶大民族의 靈的 救援을 爲하여 十字架(지금으로 말하면 死刑場의 斷頭臺 가튼 意義가 있다)에 犧牲의 祭物이된 그 卓越한 精神에 依하여 基督

敎의 信仰世界가 더욱 擴大된것이다. 만일 基督이 그 雄大한 犧牲的 價値를 發揮하지 못 하였다. 假定한다면 오늘 와서 저토록 그 靈的 敎化運動이 크게 發展되지 못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럼으로 『칸디』의 일은 바『眞理는 곳 愛니라』한 말과 가티 眞理는 곳 참스러운 犧牲(愛의 表現)에 依하여 더 빛남을 알수잇는 것이다. 그러나 儒敎(完全한 宗教的 眞理와 그 價値를 發揮하였다고는 보지 안는다)나 道敎(이는人世를 都是 超越한 또는 逃避한 隱遁主義的 宗教라고 볼 수도 있다)等은 何等의 犧牲的 精神이 업슬썬더러 別달리 靈的 世界에 關한 그 善惡의 報應, 輪廻再生, 來世審判 等の 永生的 要素가 缺乏한 緣由로 그처럼 그 敎勢가 萎微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現下諸樣의 宗教中에 基督教가 가장 만히 人心을 끄는 것도 대개 그 信仰世界에 잇서 崇高한 犧牲的 精神과 또는 그 靈的 再生에 關한 偉大한 信念의 要素가 顯著히 드러남으로서 그러하다고 본다. 이럼으로 宗教發達의 要素는 그 眞正한 犧牲的 價値에 잇다고 보나니, 現代 印度敎가 그 敎理에 依하여 『사티아』의 偉力을 發揮함도 대개 『칸디』의 徹底한 犧牲的 精神에 依하여 顯著하다고 본다. 이럼으로 『칸디』의 犧牲的 精神은 印度敎의 敎理를 더욱 빛낼썬더러 그 敎理의 理想을 더욱 雄大케한다. 이럼으로 『칸디』와 印度敎와는 姉妹와가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잇느니 만치 將來 印度敎의 大擴展을 □望하고 있다. 이리하여 印度敎의 活佛은 『마하트마칸디』로 볼 수 잇스니, 基督教의 耶蘇나 佛敎의 釋迦나 回回敎의 『마호멧』처럼 印度敎를 爲하여 活動하고 있다. 그의 全 人格으로 보아 단지 宗教家로서의 釋迦나 基督에 比하여도 何等의 遜色이업다고 본다.